

청각장애학생의 밤 활동의 인식과 경험 특성에 관한 연구*

김 만 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 요 약 》

본 연구는 밤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청각장애인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대상자인 사춘기 후반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청각장애 고등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15일부터 2013년 5월 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청각장애학생의 인식, 경험, 배경변인,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청각장애인은 대부분 건청인에 비해 밤을 더 두려워하고, 밤에서의 의사소통을 더 어려워하며, 밤 활동을 기피하는 성향이 더 크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밖에 발견한 새로운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대상자의 33.3%가 밤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밤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밤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농부모의 청각장애인들은 밤 활동 기피성향이 더 클 수 있다. 넷째, 교정청력이 정상 또는 정상역(10~25dB)에서 벗어나 30dB 이상이 되면 밤 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주제어 : 밤 활동, 의사소통, 청각장애

* 이 논문은 김만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췌하여 수정한 것으로, 2015년 11월 KINTEX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발표에 참가하였음.

** 제 1저자 (mmmik@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건청인은 하루의 낮과 밤을 마음껏 만끽하고 향유하며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인은 밤을 단순한 휴식 차원이 아닌 생산적, 경제적 시간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2년 통행금지해제 이후 밤 활동시간이 계속 늘어났으며, 1994년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관광특구 지정 등으로 밤시간 활용은 보다 적극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8년 심야영업 규제가 철폐되면서, 밤시간 활용은 본격적으로 문화관광시설, 스포츠시설, 공공시설에까지 더욱 확대되어 갔다. 현재의 밤 활동은 기존의 소비적 활동에서부터 문화 관광, 스포츠, 공공시설, 음식점시설, 상품 판매 등 생산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밤시간 활용시설들을 보면,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대형 할인매장이 과거에는 주부들의 전용공간이었으나 24시까지 또는 24시간 영업으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나들이 공간으로 밤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으며, 또 한 예로 복합쇼핑타운을 살펴보면, 두산타워, 밀리오레 등 동대문 쇼핑타운의 경우, 기존의 30~40대 소매상들을 주고객으로 삼았었으나 현재는 주고객으로 10~20대 젊은이들을 주요 타겟으로 한 결과, 지금은 10~20대 취향에 맞는 유통문화가 출현하여 자리잡게 되었다. 이들 동대문쇼핑타운의 영업시간(2015년 12월 현재)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한다(임정란, 2001). 이것은 건청인의 경우는 10대들도 새벽까지 밤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사실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의 밤 활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유흥, 주점문화로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단순한 소비활동에서부터 생산활동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회문화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이러한 밤 활동은 과거에는 성인사회의 전유물에 해당했으나 지금은 청소년들도 새로운 밤문화를 창출하며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야흐로 청소년들조차도 낮과 밤을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은 과연 어떠한가?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밝은 낮은 잘 보이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으나, 잘 보이지 않는 밤은 어떨까? 건청인과 같이 마음껏 밤을 만끽하고 향유하며 살아갈까? 나아가 건청인과 같이 밤시간을 활용하여 생산적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살아갈까? 과거 40년 이상 넘게 행해져 온 청각장애 아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각장애 아동은 건청 아동보다 사회적으로 덜 성숙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손희정, 2003). 또한 청각장애 아동들은 언어 미숙과 경험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나아가 내성적이고 열등감을 갖게 되어 의기소침하고, 신경질적이며, 또한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을 쉽게 의식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미숙한 사회적응과 행동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였다(강성순, 1993; Berlinsky, 1953). 밤에 대한 견해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밤은 어린 시절에는 단순히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었으나, 나이가 들어 점차 밤에 익숙해지면서 자유롭게 밤 활동을 생활화하게 된다. 이는 밤이라는 대상을 처음 접할 때는 어둠, 공포, 죽음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체험하게 되나, 자주 오래 접함에 따라 밤에 대한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포근함, 따스함, 열정, 사랑과 같은 긍정적 정서도 체험함으로써, 비로소 성숙한 존재로 밤을 마음껏 만끽하고 향유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할 수 있다(지선경, 1993). 그러나 어릴 때부터 청각장애인인 경우는 장애로 인해 밤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너무 강하여 밤 활동을 거부하고 기피할 경우, 그러한 성향으로 인해 밤을 제대로 만끽하거나 향유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적 관점에서 밤 활동의 중요성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생산적 측면에서의 밤 활동 뿐만이 아니라, 감성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자아실현, 내면적 성숙 등을 위해서도 밤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청각장애인의 삶의 한 측면인 밤 활동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하루 중 잘 보이지 않는 밤중에는 건청인에 비해 밤에 대한 두려움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밤 활동을 더 기피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연구 논문은 이것의 사실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청각장애인 역시 현대 사회에 소외됨이 없이 밤을 만끽하고 향유하며 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청각장애인이 청각장애로 인해 밤에 겪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밤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밤에서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이 두 문제로 귀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의 ‘밤에 대한 두려움’, ‘밤에서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이로 인한 ‘밤 활동 기피성향’의 사실여부를 청각장애인의 인식, 경험, 배경변인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로 인해 건청인보다 밤을 더 두려워하는가?
 연구문제 2.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로 인해 건청인보다 밤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 큰가?
 연구문제 3. 청각장애인은 건청인에 비해 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밤 활동을 더 기피하는가?
 연구문제 4. 청각장애인은 건청인에 비해 밤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밤 활동을 더 기피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위치한 청각장애 특수학교 4곳과 일반학교 2곳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고등학생 2, 3학년 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사항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의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설문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둘째 밤에 야외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어려움이 없고, 셋째 18세 이상의 중복장애가 없는 청각장애 고등학생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사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8	60.0
	여	12	40.0
학년	고2	7	23.3
	고3	23	76.7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사항(계속)

	왼쪽 귀			오른쪽 귀			부	모	학년	성별	나이	대화 방식		
	인공 와우, 보청기, 없음	① 세	② dB	③ dB	인공 와우, 보청기, 없음	① 세							② dB	③ dB
서울A 1	없음			와우	3~4	110	37	건청	건청	2	여	19	구화	
서울A 2	없음			와우	2	110	30	건청	건청	2	남	18	구화·수화	
서울A 3	보청		95	64	보청		100	57	건청	건청	2	여	18	구화·수화
서울A 4	와우	5	90	30	와우	17	75	30	건청	건청	2	남	18	구화·수화
서울A 5	없음			98	와우	10	120	33	건청	건청	2	남	19	구화·수화
서울A 6	없음			92	와우	12	103	30	건청	건청	3	남	19	구화·수화
서울A 7	보청	8		120	와우	14	120	40	건청	건청	3	남	20	수화
서울A 8	보청	13	95	40	와우	8		고장	건청	건청	3	남	19	구화·수화
서울A 9	와우	8	120	31	없음			103	건청	건청	3	남	19	구화·수화
서울A10	와우	3	120	40	없음			117	건청	건청	3	여	19	구화·수화
서울A11	와우	14	105	44	없음			100	건청	건청	3	여	19	구화·수화
서울C 1	와우	12		8.75	없음			100	건청	건청	3	여	19	구화·수화
서울C 2	없음			110	와우	11	111.3	10	건청	건청	3	남	20	구화·수화
서울C 3	없음			측정불가	없음			측정불가	건청	건청	3	남	20	구화·수화
서울C 4	없음			95	보청	5	98	15.9	건청	건청	3	여	19	구화·수화
서울E 1	보청	4		45	와우	13		8	건청	건청	3	남	19	구화·수화
경기B 1	보청		101	60	없음		105	110	건청	건청	3	여	19	구화·수화
경기B 2	없음		114	114	와우	8		35	건청	건청	2	남	18	구화·수화
경기B 3	없음				와우	7		30	건청	건청	3	여	20	구화·수화
경기B 4	보청	4	104	40	보청		114	74	농인	농인	3	여	19	구화·수화
경기B 5	없음			107	없음			116	건청	건청	3	남	21	구화·수화
경기B 6	없음			60	보청			40	건청	건청	3	남	19	구화·수화
경기B 7	보청			84	보청			82	모름(입양)	모름	3	남	19	수화
경기B 8	보청			104	보청			96	건청	건청	3	남	19	구화·수화
경기B 9	보청			80	보청		96	80	건청	건청	3	남	19	구화·수화
경기B10	보청			89	없음			115	농인	농인	2	남	18	구화·수화
경기D 1	보청	13			와우	12		40	건청	건청	3	여	19	수화
경기D 2	보청	7	104	72.5	없음			102.5	농인	농인	3	여	19	수화
경기D 3	보청		63.3	50	보청		76.6	50	건청	농인	3	남	20	수화
경기F 1	보청	3		30-35	와우	17		5-10	건청	건청	3	여	19	구화

* ① 이식(또는 착용) 시기 ② 이식(또는 착용)전 청력 ③ 현재(또는 교정) 청력

2. 연구도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없기에 본 연구에 사용할 설문문항은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밤은 시간적 개념과 일과적 개념을 고려한 것으로 '오후 9시 이후부터 (해뜨기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 밤 활동은 '오후 9시 이후 집(또는 기숙사)밖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밤 활동을 한다'는 의미는 밤에 적극성을 띠고 무언가를 새로이 하기 위해 집밖에 나온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밤 활동을 하지 않기 위해 귀가 중인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밤 9시 이후부터'로 정하였으며, 무언가를 새로이 한다는 의미에서 '밤 9시 이후부터 1시간 이상'이라고 정하였다. 즉, 밤 9시 이후부터 1시간 이상 집(또는 기숙사)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밤 활동을 하며 밤을 향유하고 있다고 판단,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밤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문헌연구와 밤 활동 경험에 근거하여 연구문제에 맞춘 것으로, 건청인을 따로 조사하지 않고도 청각장애인이 건청인보다 밤 활동에 대해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의 설문지 구성을 취하기 위해 2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는 청각장애로 인해 청각장애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건청인은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이 밤 활동의 어려움을 보여준다면 그만큼 건청인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둘째는 건청인과 청각장애인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더 밤 활동이 어려운지를 선택하게 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본 설문지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를 고려하였다.

구성내용은, 밤거리를 관찰한 결과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밤 활동을 크게 4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청각장애인이 밤에 집(기숙사)에서 목적지(야외 아니면 실내)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차도가 없는 길이나 차도가 있는 길을 거쳐 목적지인 야외나 실내에 도착하므로 모든 구역은 이 4가지인 차도 없는 길, 차도 있는 길, 야외, 실내로 구분되어진다. 다양한 길거리의 어둠의 차이는 차도 있는 길은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대체로 밝고, 차도 없는 길은 대화가 어려울 만큼 대체로 어둡다는 것을 발견하고 구분 지었다. 이 중 밝은 실내에서의 활동은 낮과 다름없는 상황이기에 제외하고 나머지 3구역에서 청각장애인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별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밤 활동 시 발생하는 일상 상황(일상적인 밤 활동), 불안과 긴장 상황(차도 없는 길-I), 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차도 없는 길-II), 위험 상황(빛과 어둠이 섞여있는 학교운동장), 공포 상황(불빛 없는 화장실) 등을 연구문제와 연관시켜 설정하였다. 또한 밤 활동 상황에 대한 청각장애인들의 경험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황별(일상 상황 제외) 1문항씩 4문항과 혼자 하는 밤 활동 1문항, 함께하는 밤 활동 5문항 등 10문항을 제작하여 전체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A4용지 10쪽 분량으로 응답하는 데에 약 15~20분 정도 소요되며, 대상자에 대한 배경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은 다섯 가지 보기 중 택일하는 선택형 문항이다. 설문지 구성의 전체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설문지 구성(전체)

구분	문항내용 및 문항번호	문항수	쪽	
연구 협조 안내문	·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윤리		1	
밤 활동 상황 안내	· “밤”, “밤 활동”, “차도 있는 길”, “차도 없는 길”, “어두운 밤”, “깜깜한 밤” 상황에 대한 조작적 정의		2	
연구 변인	인식	· 일상적인 밤 활동(일상 상황)(1,2)	2	3
		· 차도 없는 길-I(불안과 긴장 상황)(3~7)	5	3~4
		· 차도 없는 길-II(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9~12)	4	5
		· 빛과 어둠이 섞여있는 학교운동장(위험 상황)(15~19)	5	6
		· 불빛 없는 화장실(공포 상황)(26~29,31,32)	6	8~9
	경험	· 차도 없는 길-I(불안과 긴장 상황)(8)	1	4
		· 차도 없는 길-II(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13)	1	5
		· 혼자 하는 밤 활동(14), 함께하는 밤 활동(21~25)	6	5, 7
		· 빛과 어둠이 섞여있는 학교운동장(위험 상황)(20)	1	6
		· 불빛 없는 화장실(공포 상황)(30)	1	9
인구 사회학적 배경	청각 장애인	· 학년, 성별, 연령, 출생지역, 현재(또는 교정) 청력(인공와우시술 또는 보청기착용 여부·시기, 인공와우시술 또는 보청기착용 전 청력 정도), 대화방법, 주거지역	9	10
	부모	· 청각장애 유무	1	
총문항수/쪽수		32	10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전체 32문항 중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문항은 8문항,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문항은 7문항, 연구문제 3에 해당하는 문항은 3문항, 연구문제 4에 해당하는 문항은 3문항이다. 그중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3, 4, 5, 10번 문항은 불안(4, 5번)과 긴장(3, 10번)을 묻는 문항으로, ‘두려움은 긴장과 불안의 반응으로 유발된 정서’임을 고려, 두려움의 2문항으로 간주되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1번 문항은 낮과 같은 상황의 밤 활동에 해당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8, 13, 20, 30번 문항, 14번과 21~25번 문항 등 10문항은 다양한 밤 활동 경험을 파악하고자 별도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해서 크게 밤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룹과 중간 그룹, 그리고 밤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밤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룹의 의미는 밤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의 상대적인 의미이지 결코 건청인처럼 활발히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청인의 경우 고등학생은 2, 3일에 한 번씩도 밤 활동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주변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밤 10시, 11시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새벽 1시, 2시까지도 청소년들의 밤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인이 밤 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의미는 건청인의 그것과는 전혀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이를 감안하고, 본 연구의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상 위에서 기술한 밤 활동의 상황별 인식을 묻는 문항과 경험을 묻는 문항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상적인 밤 활동(일상 상황)

일상 상황이란 밤 9시 이후 밤 활동을 할 경우 일상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차도 있는 길과 차도 없는 길을 설정하였다. 차도 있는 길은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일 정도로 불빛이 밝아 거의 낮과 다름없는 상황으로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1번 문항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도 없는 길 2번 문항만 고려한다. 밤 활동 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상대방 얼굴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소통(대화)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으로 매우 어렵다 1부터 매우 쉽다 5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일상 상황의 측정문항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일상 상황의 측정문항

구분	문항 번호	연구 문제	질문내용
인식	1	-	차도 있는 길 (불빛으로 환한 곳),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걸어가면서 친구와 대화 시 곤란도
	2	2	차도 없는 길(상대방 얼굴 표정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곳),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친구와 대화 시 곤란도

2) 차도 없는 길- I (불안과 긴장 상황)

불안과 긴장 상황이란 밤 9시 이후 상대방 얼굴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 차도 없는 길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때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 인식과 관련된 각 문항은 매우 긴장(불안, 두렵)한다 1부터 전혀 긴장(불안, 두렵)하지 않다 5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실패와 관련된 문항은 없다 1부터 기타() 5까지 임의의 구간별 횟수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불안과 긴장 상황의 측정문항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불안과 긴장 상황의 측정문항

구분	문항번호	연구문제	질문내용
인식	3	1	차도 없는 길, 낯선 사람의 대화 시도가 주는 긴장도
	4	1	문항 3 상황에서 어둠으로 대화가 어렵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치려는데 낯선 사람이 길을 막고 말을 걸 때의 마음 상태
	5	1	청각장애인의 의사표시를 어둠 때문에 낯선 사람이 알지 못하고 계속 말을 걸 때의 마음 상태
	6	1	문항3~문항5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밤에 대한 느낌
	7	3	문항3~문항5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밤 활동을 대하는 자세
실태	8	1	문항3~문항5와 유사한 실제 상황의 경험 유무

3) 차도 없는 길-II(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

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이란 청각장애인이 밤 9시 이후 차도 없는 길에서 낯선 사람의 몸짓과 행동을 마주했을 때의 상황으로 차도 없는 길-I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말한다.

즉, 차도 없는 길-I은 청각장애인이 잘 모르고 지나치려는 상황이고, 차도 없는 길-II는 청각장애인의 오해나 착각으로 스스로 곤란을 겪는 상황이다. 건청인의 의도와는 달리 청각장애인에게는 똑같은 상황으로 다가온다. 이 연구에서 인식과 관련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긴장, 기피)1부터 전혀 (긴장, 즐긴다)그렇지 않다 5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실태와 관련된 문항은 없다 1부터 기타() 5까지 임의의 구간별 횟수를 제시하여 선택하거나 직접 표기하도록 하였다. 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 측정문항은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 측정문항

구분	문항번호	연구문제	질문내용
인식	9	2	차도 없는 길, 낯선 사람의 몸짓(예, 손을 흔들거나 노래 부는 것 등)을 대화의 시도로 착각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물음
	10	1	문항9와 같은 착각이 들었을 때의 마음 상태
	11	2	밤에 바깥 활동 시 문항 9와 같은 유사한 착각이나 오해를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물음
	12	4	문항9와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면, 밤 활동을 대하는 자세
실태	13	2	문항9와 유사한 실제 상황의 경험 유무

4) 빛과 어둠이 섞여있는 학교운동장(위험 상황)

위험 상황이란 청각장애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는 야외뿐만이 아니라 차도 있는 길, 차도 없는 길 등 어떠한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인식과 관련된 각 문항은 청각장애인이 훨씬 더 불리하다 1부터 건청인이 훨씬 더 불리하다 5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실태와 관련된 문항은 없다 1부터 기타() 5까지 임의의 구간별 횟수를 제시하여 선택하거나 직접 표기하도록 하였다. 위험상황의 측정문항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위험 상황의 측정문항

구분	문항번호	연구문제	질문내용
인식	15	2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밤,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간의 축구 시합 상황 시 어느 쪽이 더 불리한지에 대한 물음
	16	2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밤,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간의 축구 시합 도중, 위험 발생 시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에 대한 물음
	17	2	청각장애로 인해 문항16과 유사한 위험한 일을 간혹 겪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물음
	18	1	문항16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밤에 대한 느낌
	19	4	문항15~문항16과 같은 상황을 겪은 후, 밤 활동을 대하는 자세
실태	20	2	문항16과 유사한 위험상황의 경험 유무

5) 혼자 또는 함께하는 밤 활동(밤 활동 경험)

밤 활동 경험은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하는 자기주도적인 밤 활동과 학교, 교회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타인(보호자)주도적인 밤 활동 순으로 구성하였다.

경험의 정도를 묻는 이들 문항은 1달에 1번 정도 1부터 기타()에 1번 정도 6까지 임의의 구간별 횟수를 제시하거나 직접 표기하도록 하였다. 밤 활동 경험의 측정문항은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밤 활동 경험의 측정문항

구분	문항번호	질문내용
경험의 정도	14	밤 9시 이후, 혼자서 집 밖의 거리를 1시간 이상 돌아다녀 본 경험의 정도
	21	밤 9시 이후, 친구와 함께 집 밖의 거리를 1시간 이상 돌아다녀 본 경험의 정도 (학교나 교회행사에 의한 경험은 제외)
	22	밤 9시 이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내(예,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친구들과 함께 1시간 이상 놀아 본 경험의 정도(학교, 교회행사에 의한 경험은 제외)
	23	밤 9시 이후, 넓은 야외(예, 학교운동장, 광장, 놀이공원, 들뜰 등)에서 친구들과 함께 1시간 이상 놀아 본 경험의 정도(학교나 교회행사에 의한 경험은 제외)
	24	밤 9시 이후, 학교나 교회행사에 참가하여 1시간 이상 친구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경험한 정도
	25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밤 9시 이후에 가족과 함께 1시간 이상 야외 활동을 경험한 정도

6) 불빛 없는 화장실(공포 상황)

공포 상황이란 깜깜한 밤에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이다. 학교가 주최하는 야외캠핑에서 청각장애인 2명과 건청인 2명, 총 4명이 조를 이루어 캠핑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장실을 가던 중 한 개 밖에 없는 랜턴이 떨어져 망가졌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상황1)은 두려움을 맞이하는 상황, (상황2)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상황으로 구성하여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인식과 관련된 각 문항은 청각장애인이 훨씬 더 밤을 무서워한다(어렵다, 기피한다) 1부터 건청인이 훨씬 더 밤을 무서워한다(어렵다, 기피한다) 5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실태와 관련된 문항은 없다 1부터 기타() 5까지 임의의 구간별 횟수를 제시하거나 직접 표기하도록 하였다. 공포 상황의 측정문항은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공포 상황의 측정문항

구분	문항번호	연구문제	질문내용
인식	26	1	(상황1)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무서움에 대한 느낌의 정도
	27	2	(상황1)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대화하기 곤란 정도
	28	3	(상황1)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밤 활동의 기피 정도
	29	3	(상황1)과 유사한 실제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밤 활동을 대하는 자세
	31	1	(상황2)를 통해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무서움에 대한 느낌의 정도
	32	4	(상황2)를 통해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밤 활동의 기피 정도
실태	30	1	(상황1)과 유사한 공포 상황의 경험 유무

7) 대상자 배경문항

대상자 배경문항은 청각장애인과 부모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 청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정보의 측정문항은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대상자 배경문항

구분	문항번호	질문내용
청각 장애인	1	학년
	2	성별
	3	나이
	4	출생지역
	5	주거지역
	6	양 쪽 귀의 현재(또는 교정) 청력 상태 - 인공와우시술 또는 보청기착용 여부시기 및 인공와우시술 또는 보청기착용 전 청력 정도
	7	대화 방법
부모	1	청각장애 유무

8)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

본 설문지는 청각장애아교육을 전공하고,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교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 3인에 의해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및 사전조사

조사절차는 최초 설문지를 구성한 후 두 차례의 예비조사와 사전조사를 거쳐 본조사로 구성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2013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6명의 중, 고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2차 사전조사는 2013년 4월 4일에 4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나온 학생들의 응답내용과 설문조사 시 학생들의 태도를 분석하여 설문문항과 응답방식을 수정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전조사 실시 후 지도교수의 조언을 받아 재수정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13년 4월 15일에서 5월 3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해 사전에 해당학교에 협조를 구했으며,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참관하였고, 교사들의 협조와 지도하에 교무실이나 교실, 학생식당 등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진행시 간혹 학생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는 연구 참여자로서 교사들이 수화나 구화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최종적으로 총 30부의 설문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4. 자료처리

총 30명의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통계(빈도, 비율)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청각장애학생의 밤 활동에 관한 인식

청각장애학생이 밤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5가지의 상황, 첫째, 일상 상황, 둘째, 불안과 긴장 상황, 셋째, 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 넷째, 위협 상황, 다섯째, 공포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청각장애학생 30명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청각장애학생이 밤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5가지 상황에 따른 각 문항별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1) 일상적인 밤 활동(일상 상황)

- (1) 차도 있는 길, 밝은 밤, 불빛이 많아 밝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걸어 가면서 친구와 대화 시 곤란도

문항1, 청각장애인에게는 낮과 같은 상황이므로 분석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2) 차도 없는 길, 어두운 밤,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친구와 대화 시 곤란도

문항2, (연구문제2) 결과: '어렵다' 15명(50%), '매우 어렵다'와 '보통이다' 각각 7명(23.3%), '쉽다' 1명(3.3%), '매우 쉽다' 0명(0%).

2) 차도 없는 길-I (불안과 긴장 상황)

(1) 차도 없는 길, 낯선 사람의 대화 시도가 주는 긴장도

문항3, (연구문제1) 결과: '긴장된다' 16명(53.3%), '잘 모르겠다' 5명(16.7%), '매우 긴장된다' 5명(16.7%), '긴장되지 않는다'와 '전혀 긴장되지 않는다'는 각각2명 (6.7%).

(2) 문항3 상황에서 어둠으로 대화가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냥 지나치려는데 낯선 사람이 길을 막고 말을 걸 때의 마음 상태

문항4, (연구문제1) 결과: '불안하다' 12명(40%), '잘 모르겠다' 9명(30%), '매우 불안하다' 8명(26.7%), '전혀 불안하지 않다' 1명(3.3%), '불안하지 않다' 0명(0%).

(3) 낯선 사람도 잘 볼 수가 없어 청각장애인의 의사표시(손짓, 수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걸 때의 마음 상태

문항5, (연구문제1) 결과: '불안하다' 13명(43.3%), '잘 모르겠다' 9명(30%), '매우 불안하다' 7명(23.3%), '불안하지 않다' 1명(3.3%), '전혀 불안하지 않다' 0명(0%).

(4) 문항3~문항5(낯선 사람의 대화시도)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밤에 대한 느낌

문항6, (연구문제1) 결과: '그저 그렇다' 12명(40%), '두렵다' 10명(33.3%), '매우 두렵다' 4명(13.3%), '평안하다'와 '매우 평안하다' 각각 2명(6.7%).

(5) 문항3~문항5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밤 활동을 대하는 자세

문항7, (연구문제3) 결과: '기피한다' 14명(46.7%), '그저 그렇다' 10명(33.3%), '매우 기피한다' 5명(16.7%), '즐긴다' 1명(3.3%), '매우 즐긴다' 0명(0%).

(6) 문항3~문항5와 유사한 실제 상황(불안과 긴장 상황)의 경험 유무

문항8, 실태(연구문제1)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간단히 '있다' 와 '없다'의 2점 척도로 나타내었다. 문항3~문항5와 유사한 실제 상황에 대한 경험 유무의 결과는 '있다' 20명(66.7%), '없다' 10명(33.3%)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없다’ 10명(33.3%)에는 밤 활동을 하지 않아서 경험이 없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고려하여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에 관한 경험 실태에서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8번 문항뿐만 아니라, 13, 20, 30번 문항 모두 마찬가지이다.

3) 차도 없는 길-Ⅱ(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

(1) 차도 없는 길, 어두운 밤, 낯선 사람의 몸짓을 대화의 시도로 착각할 수 있는가

문항9, (연구문제2) 결과: ‘그렇다’ 13명(43.3%), ‘잘 모르겠다’ 9명(30%), ‘매우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각각 4명(13.3%), ‘전혀 그렇지 않다’ 0명(0%).

(2) 문항9와 같은 착각이 들었을 때의 마음 상태

문항10, (연구문제1) 결과: ‘긴장된다’ 13명(43.3%), ‘잘 모르겠다’ 7명(23.3%), ‘매우 긴장된다’와 ‘긴장되지 않는다’ 각각 4명(13.3%), ‘전혀 긴장되지 않는다’ 2명(6.7%).

(3) 밤에 바깥 활동 시 문항 9와 같은 유사한 착각이나 오해를 할 수 있는가

문항11, (연구문제2) 결과: ‘그렇다’ 21명(70%), ‘잘 모르겠다’ 5명(16.7%), ‘그렇지 않다’ 2명(6.7%), ‘매우 그렇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각각 1명(3.3%).

(4) 문항9와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면, 밤 활동을 대하는 자세

문항12, (연구문제4) 결과: ‘그저 그렇다’ 15명(50%), ‘기피한다’ 11명(36.7%), ‘매우 기피한다’ 4명(13.3%),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각각 0명(0%).

4) 빛과 어둠이 섞여있는 학교운동장(위험상황)

(1) 빛과 어둠이 섞여있는 밤,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간의 축구 시합 상황 시 어느 쪽이 더 불리한가

문항15, (연구문제2) 결과: ‘청각장애인 더 불리하다’ 15명(50%), ‘청각장애인이 훨씬 더 불리하다’ 10명(33.3%), ‘둘 다 똑같다’ 4명(13.3%), ‘건청인이 더 불리하다’ 0명(0%).

(2) 빛과 어둠이 섞여있는 밤,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간의 축구 시합 중 돌발적인 위험 상황(화물차 달려옴) 발생 시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문항16, (연구문제2) 결과: ‘청각장애인이 훨씬 더 위험하다’ 18명(60%), ‘청각

장애인이 더 위험하다' 8명(26.7%), '둘 다 똑같다' 3명(10%), '건청인이 더 위험하다' 1명(3.3%).

(3) 청각장애로 인해 문항16과 유사한 일을 간혹 겪을 수 있는가

문항17, (연구문제2) 결과: '매우 그렇다' 13명(43.3%), '그렇다' 8명(26.7%), '잘 모르겠다' 6명(20%), '그렇지 않다' 3명(10%), '전혀 그렇지 않다' 0명(0%).

(4) 문항 16과 같은 상황을 겪을 때, 밤에 대한 느낌

문항18, (연구문제1) 결과: '매우 두렵다'와 '그저 그렇다'가 각각 10명(33.3%), '두렵다' 9명(30%), '매우 평안하다' 1명(3.3%), '평안하다' 0명(0%).

(5) 문항15~문항16과 같은 상황을 겪은 후, 밤 활동을 대하는 자세

문항19, (연구문제4) 결과: '그저 그렇다' 12명(40%), '기피한다' 10명(33.3%), '매우 기피한다' 7명(23.3%), '즐긴다' 1명(3.3%), '매우 즐긴다' 0명(0%).

5) 불빛 없는 화장실(공포상황)

(1) (상황1)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무서움에 대한 느낌의 정도

문항26, (연구문제1) 결과: '청각장애인이 훨씬 더 무서워한다' 12명(40%), '청각장애인이 더 무서워한다' 11명(36.7%), '둘 다 똑같다' 7명(23.3%), '건청인이 더 밤을 무서워한다', '건청인이 훨씬 더 밤을 무서워한다' 0명(0%).

(2) (상황1)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대화하기 곤란 정도

문항27, (연구문제2) 결과: '청각장애인이 훨씬 더 대화가 어렵다' 17명(56.7%), '청각장애인이 더 대화가 어렵다' 9명(30%), '둘 다 똑같다' 3명(10%), '건청인이 더 대화가 어렵다' 1명(3.3%), '건청인이 훨씬 더 대화가 어렵다' 0명(0%).

(3) (상황1)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밤 활동의 기피 정도

문항28, (연구문제3) 결과: '청각장애인이 훨씬 더 밤에 활동하는 것을 기피한다' 13명(43.3%), '청각장애인이 더 밤에 활동하는 것을 기피한다' 9명(30%), '둘 다 똑같다' 8명(26.7%), '건청인이 더 밤에 활동하는 것을 기피한다'와 '건청인이 훨씬 더 밤에 활동하는 것을 기피한다' 각각 0명(0%).

(4) (상황1)과 유사한 실제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밤 활동을 대하는 자세

문항29, (연구문제3) 결과: ‘기피한다’ 11명(36.7%), ‘그저 그렇다’ 10명(33.3%), ‘매우 기피한다’ 7명(23.3%), ‘즐긴다’ 2명(6.7%), ‘매우 즐긴다’ 0명(0%).

(5) (상황2)를 통해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무서움에 대한 느낌의 정도

문항31, (연구문제1) 결과: ‘청각장애인이 더 밤을 무서워한다’ 13명(43.3%), ‘둘 다 똑같다’ 11명(36.7%), ‘청각장애인이 훨씬 더 밤을 무서워한다’ 6명(20%), ‘건청인이 더 밤을 무서워한다’, ‘건청인이 훨씬 더 밤을 무서워한다’ 각각 0명(0%).

(6) (상황2)를 통해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밤 활동의 기피 정도

문항32, (연구문제4) 결과: ‘청각장애인이 더 밤에 활동하는 것을 기피한다’ 17명(56.7%), ‘청각장애인이 훨씬 더 밤에 활동하는 것을 기피한다’ 7명(23.3%), ‘둘 다 똑같다’ 5명(16.7%), ‘건청인이 더 밤에 활동하는 것을 기피한다’ 1명(3.3%), ‘건청인이 훨씬 더 밤에 활동하는 것을 기피한다’ 0명(0%).

이상 실태(문항8, 13, 20, 30)를 제외하고 인식에 관련된 문항들만을 알기 쉽게 성향별로 묶어서 함께 표시한 연구문제별 연구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연구문제별 연구결과

구 분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		연구문제 4		성향
응답범주 1	24.4%	63.3% (76.7)	33.3%	75.7% (86.7)	27.8%	65.6% (73.3)	20%	62.2% (80.0)	부정적 성향
응답범주 2	38.9%		42.4%		37.8%		42.2%		
응답범주 3	30.6%		17.7%		31.1%		35.6%		중립
응답범주 4	3.1%	6.1%	5.7%	6.6%	3.3%	3.3%	2.2%	2.2%	긍정적 성향
응답범주 5	3.1%		0.9%		0%		0%		

* 괄호안의 숫자는 각 연구문제별 중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문항의 비율을 표시함

고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로 인해 건청인보다 밤을 더 두려워하는가? (연구문제 1)와 관련하여 전체 대상자 중 63.3%에서 최대 76.7%까지 건청인보다 밤을 더 두려운다.

둘째,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로 인해 건청인보다 밤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 큰가?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전체 대상자 중 75.7%에서 최대 86.7%까지 건청인보다 밤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 크다.

셋째, 청각장애인은 건청인에 비해 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밤 활동을 더 기피하는가? (연구문제 3)와 관련하여 전체 대상자 중 65.6%에서 최대 73.3%까지 건청인보다 밤 활동을 더 기피한다.

넷째, 청각장애인은 건청인에 비해 밤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밤 활동을 더 기피하는가?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전체 대상자 중 62.2%에서 최대 80%까지 건청인보다 밤 활동을 더 기피한다.

이에 반해 연구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는, 연구문제 1을 인정하지 않는 대상자가 전체의 6.1%, 연구문제 2를 인정하지 않는 대상자가 전체의 6.6%, 연구문제 3을 인정하지 않는 대상자가 전체의 3.3%, 연구문제 4를 인정하지 않는 대상자가 전체의 2.2%로 나타났다. 이것은 밤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밤 활동을 기피하지 않는 대상자가 1명(3.3%)이고, 밤에 대화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밤 활동을 기피하지 않는 대상자는 0.67명(2.2%)으로, 두려움(연구문제 3)과 대화의 어려움(연구문제 4)을 동시에 고려하면, 청각장애인은 단 한 명도 밤 활동을 선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 여기서는 문항별로 분석하여 살펴보았으며, 대상자별 점수와 문항분포는 나중에 논의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2. 청각장애학생의 밤 활동에 관한 경험(정도)

여기서는 실제로 청각장애학생이 밤 활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영위하고 있는지, 문항14(혼자 하는 밤 활동), 문항21~25(함께하는 밤 활동)를 통해 밤 활동 경험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혼자 또는 함께하는 밤 활동(밤 활동 경험)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하는 자기주도적인 밤 활동과 학교, 교회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타인(보호자)주도적인 밤 활동 순으로 구성하였다. 경험을 묻는 이들 문항은 1달에 1번 정도 1부터 기타()에 1번 정도 6까지 임의의 구간별 횟수를 제시하거나 직접 표기하도록 하였다. 밤 활동 경험의 측정문항은 <표 7>과 동일하므로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정리하여 종합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대상자들의 밤 활동 경험 정도(종합)

구 분	14 (혼자 밤거리 활동)	21 (친구와 밤거리 활동)	22 (실내 활동)	23 (야외 활동)	24 (단체 활동)	25 (가족 활동)
1주일에 1번 정도	2	5	5	3	1	1(하루)
1달에 1번 정도	12	13	11	12	7	7
2달에 1번 정도	1	1	3	2	4	2
3달에 1번 정도	1	1	0	0	1	4
6개월에 1번 정도	2	1	2	2	2	2
1년에 1번 정도	8	3	3	5	10	11
없다	4	6	6	6	5	3

대상자들의 밤 활동 경험 정도를 파악해 보면, 밤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룹과 중간 그룹, 그리고 밤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각각 16, 4, 10명으로 나타났다. 밤 활동을 활발히 하는 대상자는 16명으로 전체의 53.3%이며, 전체 대상자 중 33.3%에 해당하는 10명은 밤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간그룹에 속하는 대상자는 4명으로 이들의 공통점은 혼자 하는 밤 활동(문항14)이 1명이 6개월에 1번 정도이고, 3명은 1년에 1번 정도라고 응답하여 모두 혼자 하는 밤 활동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들 중 2명은 밤 활동을 하지 않는 쪽에 가깝고 나머지 2명은 밤 활동을 활발히 하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설문지에 응답한 대상자별 밤 활동 경험 정도를 <표 12>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2> 대상자별 밤 활동 경험 정도

학교	14	21	22	23	24	25	학교	14	21	22	23	24	25
서울A 1	1달	1달	1달	1달	1달	1달	경기B 1	6개월	1주일	1주일	6개월	6개월	6개월
서울A 2	1년	1년	6개월	1년	1년	1년	경기B 2	1달	2달	1달	1년	1년	2달
서울A 3	1달	1달	1달	1달	2달	3달	경기B 3	1년	6개월	1년	1년	1달	1년
서울A 4	6개월	2년	없다	없다	3달	1년	경기B 4	1년	1달	1달	1년	1년	1년
서울A 5	1년	1주일	1주일	1주일	1달	1달	경기B 5	1달	1달	2달	1달	1달	6개월
서울A 6	1달	1달	1달	2달	6개월	1달	경기B 6	3달	1달	6개월	1달	2달	1년
서울A 7	1주일	1주일	1주일	1주일	1주일	1달	B경기 7	1달	3달	2달	2달	1년	3달
서울A 8	1주일	1주일	1주일	1달	1년	1년	경기B 8	1달	1달	1달	1달	2달	1달
서울A 9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1달	경기B 9	1년	1년	1년	6개월	1년	1년
서울A 10	1년	없다	없다	없다	1년	3달	경기B 10	1년	1년	1년	1년	1년	10개월
서울A 11	1달	1달	1달	1달	1달	하루	-	-	-	-	-	-	-
-	-	-	-	-	-	-	서울C 1	1달	1달	1달	1달	1달	1년
경기D 1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서울C 2	2달	1달	1달	1달	2달	1달
경기D 2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1년	서울C 3	1달	1달	1달	1달	1년	1년
경기D 3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서울C 4	1달	1달	1달	1달	1달	없다
-	-	-	-	-	-	-	-	-	-	-	-	-	-
서울E 1	1년	1주일	2주일	1주일	1년	2달	경기F 1	1달	1달	2달	1달	없다	3달

* 진한 글씨는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으로 간주한다 ** 1달은 1달에 1번을 의미한다

3. 청각장애학생의 밤 활동에 관한 경험(실태)

실제로 청각장애학생이 밤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겪고 있는지를 문항8(불안과 긴장 상황), 문항13(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 문항20(위험 상황), 문항30(공포 상황)을 통해 실제 상황별 경험 유무와 이를 수정한 비교비율을 각각 표로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표 13> 실제 상황별 경험 유무
(단위: 빈도-명, 백분율, 비교비율-%)

구 분	불안과 긴장 상황		오해나 착각 상황		위험 상황		공포 상황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없다	10	33.3	12	40	8	26.7	13	43.3
있다	20	66.7	18	60	22	73.3	17	56.7

위의 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4>와 <표 15>와 같다.

<표 14> 불안과 긴장 상황 및 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의 경험 유무
(단위: 빈도-명, 백분율, 비교비율-%)

구 분	불안과 긴장 상황			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		
	빈도	백분율	비교비율	빈도	백분율	비교비율
없다	10*	33.3	33.3(20)	12**	40	40(20)
1번 - 3번	15	50	66.7(80)	10	33.3	60(80)
4번 - 6번	4	13.3		7	23.3	
7번 - 9번	1	3.3		1	3.3	
()번	0	0		0	0	

*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 4명 포함 **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 6명 포함

<표 15> 위험 상황 및 공포 상황의 경험 유무
(단위: 빈도-명, 백분율, 비교비율-%)

구 분	위험 상황			공포 상황		
	빈도	백분율	비교비율	빈도	백분율	비교비율
없다	8*	26.7	26.7(13.3)	13**	43.3	43.3(23.3)
1번 - 3번	13	43.3	73.3(86.7)	13	43.3	56.7(76.7)
4번 - 6번	9	30		3	10	
7번 - 9번	0	0		1	3.3	
()번	0	0		0	0	

*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 4명 포함 **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 6명 포함

<표 14>와 <표 15>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먼저 불안과 긴장 상황을 살펴보면 밤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과 긴장 상황의 경험도 없는 경우, 즉 ‘1년에 1번’이거나 ‘없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이다.

이는 밤 활동을 하면서 불안과 긴장 상황의 경험이 없는 대상자와는 구별해야한다. ‘없다’의 응답자 10명 중 4명이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이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6명 정도만이 밤 활동을 하면서 불안과 긴장 상황의 경험도 없는 것으로 전체의 20%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들은 앞으로 밤 활동을 할 경우, 활동에 따른 불안과 긴장 상황의 경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로 간주해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포함하여 표를 제시하였다. 나머지 세 가지 상황도 똑같이 적용하였다.

1) 불안과 긴장 상황

불안과 긴장 상황에서 비교비율의 () 안의 수치를 보면, 밤 활동을 하면서 불안과 긴장 상황의 경험도 없는 대상자가 전체의 20%이고, 밤 활동을 하면서 불안과 긴장 상황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와 밤 활동 시 불안과 긴장 상황의 경험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가 전체의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

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없다’의 응답자 12명 중 6명이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이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6명 정도만이 밤 활동을 하면서

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 경험도 없는 것으로 전체의 20%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80%는 밤 활동을 하면서 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 경험이 있거나, 경험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3) 위험 상황

위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없다'의 응답자 8명 중 4명이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이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4명 정도만이 밤 활동을 하면서 위험 상황의 경험도 없는 것으로 전체의 13.3%가 이에 해당하며, 나머지 86.7%는 위험상황을 겪었거나, 겪을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이다.

4) 공포 상황

공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없다'의 응답자 13명 중 6명이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이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7명 정도만이 밤 활동을 하면서 공포 상황의 경험도 없는 것으로 전체의 23.3%가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4가지 상황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위의 4가지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경험이 많은 편에 속한 4번 이상의 경험자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불안과 긴장 상황(남 3명, 여 2명), 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남 4명, 여 4명), 위험 상황(남 6명, 여 3명), 공포 상황(남 1명, 여 3명) 중에서 위험 상황의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남자의 비중이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공포 상황의 경험은 4가지 경험 중 가장 적었으며 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이한 점은 공포 상황의 경험이 많은 여자 3명 중 2명은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이고 나머지 1명도 중간 그룹 중 밤 활동을 하지 않는 쪽에 가까운 대상자라는 것이다. 즉, 앞의 3가지 상황은 밤 활동을 많이 할수록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포 상황은 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 종합하면, 전체 대상자 중 2명(서울A 11, 서울E 1) 이외에는 대부분 밤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경험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93.3%가 밤 활동을 하면서 적게는 한번 이상(서울A 1)부터 많게는 20번 이상(서울A 3)까지 밤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활발하게 밤 활동을 하는 집단(1달에 1번 정도)에 속하는 대상자들(서울A 3, 6, 8, 경기B 5, 서울C 1, 2, 4)이 어려운 경험도 가장 많이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밤 활동 하지 않는 집단(1년에 1번 정도)에 속하는 대상자들(서울A 4, 9, 10, 경기B 3, 9, 10, 경기D 2)도 대부분 10번 내외로 밤 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상자들은 위의 4가지 상황 중 위험 상황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각장애학생의 밤 활동에 관한 배경변인

여러 가지 배경변인 중 청각장애학생의 밤 활동의 인식과 경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변인으로 부모와 청력의 변인들을 탐색할 수 있었다.

1) 부모

대상자 중 부모가 농인인 대상자가 경기B 4, 10, 경기D 2(이상 부모 농인), 경기D 3(부: 건청인, 모: 농인) 등 4명인데, 이들 중 3명은 밤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에 속해 있으며, 나머지 1명(경기B 4)은 중간 그룹에 속해 있다. 그러나 경기B 4 역시 중간 그룹 4명 중 밤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 쪽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2) 청력

또 한 가지의 특이사항은 대상자의 청력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밤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 10명의 청력을 보면 30dB에서 89dB까지 다양했다. 이들 중 청력이 제일 좋은 대상자 3명(서울A 2, 4, 경기B 3)이 30dB이고, 1명(서울A 9)이 31dB이다. 이것은 향후 밤 활동의 가능성을 가름하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30dB 미만의 대상자는 모두 밤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정청력이 정상역(10~25dB)에 속할 경우와 이를 벗어날 경우와는 밤 활동을 하는데 매우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연구결과를 청각장애학생의 인식, 경험, 배경변인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인식에 대한 논의

인식의 21문항은 5점척도(-2에서 2까지 단, 연구문제 1의 3, 4, 5, 10번 문항은 -1에서 1까지)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대상자의 연구문제별 점수와 문항분포를 다음의 <표 16>에 제시하였다.

<표 16> 대상자의 연구문제별 점수(대상자별 점수) 및 문항분포

	연구 문제1	연구 문제2	연구 문제3	연구 문제4	문항분포			연구 문제1	연구 문제2	연구 문제3	연구 문제4	문항분포		
					부정/중립/긍정							부정/중립/긍정		
서울A1	7.5	7	2	4	18 / 2 / 1	경기B1	5.5	11	4	1	16 / 5 / 0			
서울A2	4	9	2	2	16 / 3 / 2	경기B2	7	9	3	3	20 / 0 / 1			
서울A3	8.5	9	2	3	18 / 3 / 0	경기B3	5.5	4	1	1	11 / 8 / 2			
서울A4	2	5	1	1	10 / 11 / 0	경기B4	10.5	10	5	4	20 / 1 / 0			
서울A5	0.5	7	3	3	11 / 8 / 2	경기B5	4	9	2	2	16 / 3 / 2			
서울A6	0.5	3	0	0	4 / 15 / 2	경기B6	3.5	4	3	4	13 / 6 / 2			
서울A7	2	4	1	1	8 / 13 / 0	경기B7	4.5	10	2	2	15 / 5 / 1			
서울A8	-0.5	7	0	0	6 / 14 / 1	경기B8	0.5	2	1	0	9 / 7 / 5			
서울A9	6	5	3	2	15 / 6 / 0	경기B9	5	6	6	6	15 / 3 / 3			
서울A10	4.5	3	0	3	11 / 9 / 1	경기B10	3	6	3	2	13 / 8 / 0			
서울A11	3	1	3	2	8 / 11 / 2	-	-	-	-	-	-			
-	-	-	-	-	-	서울C1	6	8	4	2	18 / 3 / 0			
경기D1	11.5	11	6	6	20 / 1 / 0	서울C2	8.5	8	5	5	20 / 1 / 0			
경기D2	7	8	4	5	19 / 1 / 1	서울C3	1	7	2	3	9 / 9 / 3			
경기D3	5.5	4	2	1	14 / 6 / 1	서울C4	3.5	14	2	1	16 / 1 / 4			
-	-	-	-	-	-	-	-	-	-	-	-			
서울E1	8	11	5	3	21 / 0 / 0	경기F1	5.5	11	4	1	16 / 5 / 0			

- * 점수 0점은 중립을 의미함(연구문제1 전체평균은 4.8점, 연구문제2 전체평균은 7.1점)
- * 진한 글씨는 배낭여행 경험자(서울A의 고3 대상자: 서울A 6~11)
- * 이탤릭체는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
- * 문항분포는 부정적 성향의 응답/ 중립적 성향의 응답/ 긍정적 성향의 응답 순으로 배열

(1) 대상자의 연구문제별 점수(대상자별 점수)

먼저 <표 16>의 연구문제별 점수 및 문항분포를 살펴보기에 앞서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이탤릭체로 표시)는 밤 활동을 기피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밤 활동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점수나 문항분포는 이들에게는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 별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정리하면, 대상자별 점수에서도 밤 활동 선호 0명, 중립 2명, 기피 28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90%이상이 건청인에 비해 밤을 더 두려워하며, 의사소통을

더 어려워하며, 또한 밤 활동을 더 기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는 전체대상자 중 단 한 명도 밤 활동을 선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앞서 확인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중립에 해당하는 서울A 6, 8은 배낭여행을 다녀온 직후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자들이라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2) 문항 분포

문항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정적 성향의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중립적 성향의 비중이 많으며 긍정적 성향의 응답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학교사정상 서울A의 고3 대상자 6명(서울A 6~11)은 3박 4일간의 배낭여행(졸업여행)-교사의 말에 의하면 밤 9시, 10시까지 걸어 다녔다고 함-을 다녀온 직후에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설문조사가 끝난 후 대화 도중, 배낭여행에 대해서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강조한 덩치 큰 남학생의 말에 다른 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것을 보면 이들에게는 큰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연구자 입장에서도 본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서울A의 고3 대상자 6명(서울A 6~11) 중 2명(서울A 9, 10)은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이고 나머지 4명은 밤 활동을 활발히 하는 대상자이다. 먼저 밤 활동을 활발히 하는 대상자를 살펴보면, 서울A의 고3 대상자(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 제외) 4명의 경우 '중립'으로 응답한 문항들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배낭여행의 영향이 컸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겠다. 서울A의 고3 대상자 4명과 다른 학교의 대상자들의 문항분포를 비교해보면 21문항 중 '중립'으로 응답한 문항이 다른 학교의 대상자들은 평균 3.7문항 정도이나, 서울A의 고3 대상자 4명의 평균은 13.3문항으로 9.6문항, 약 10문항 정도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21문항 중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배낭여행으로 인해 밤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밤 활동에 대한 기피 성향이 상당량(10문항 정도) 중립적인 정서와 성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배낭여행 직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격이 되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 교육이나 제도적 뒷받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들만 따로 비교해보면, 배낭여행을 다녀온 서울A 9, 10은 중립 문항이 평균 7.5문항, 나머지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 8명의 평균은 5.1문항으로 본 설문조사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은 밤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는 부정적 성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았음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 (1), (2)를 종합하면, 대상자별 점수와 문항분포에서 나타났듯이 연구문제 1은 26명(86.7%), 연구문제 2는 30명(100%), 연구문제 3은 27명(90%), 연구문제 4는 27명(90%)이 각각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구문제들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는 밤 활동 선호 0명, 중립 2명, 기피 28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이 건청인에 비해 밤에 대한 두려움, 밤에서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밤 활동 기피 성향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전체대상자 중 단 한 명도 밤 활동을 선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문항분포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다.

2) 경험에 대한 논의

(1) 경험 정도에 대한 논의

경험정도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33.3%가 밤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기피성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연구문제 3, 4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2) 경험 실태에 대한 논의

경험 실태에 있어서는 밤 활동을 많이 할수록 불안과 긴장 상황, 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 위험 상황 등의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포 상황은 이와는 달리 이에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포 상황의 경우, 밤 활동은 적는데 공포상황의 경험은 많고, 다른 한편으로 밤 활동을 하면서도 공포 상황의 경험이 없는 것이 전체의 23.3%로 4가지 상황 중 가장 높다는 것은, 오히려 밤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위의 4가지 상황 중 위험 상황에 청각장애인 대부분이 쉽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청각장애인 스스로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실태를 연구문제와 연관시켜 논한다면, 실태의 실제적인 경험은 경우에 따라 대상자의 현재 성향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미래의 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실태를 살펴보면, 문항8(불안과 긴장 상황)과 문항30(공포 상황)은 연구문제 1에 관련된 문항이지만 연구문제 3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문항13(오해나 착각의 곤란 상황)과 문항20(위험 상황)은 연구문제 2에 관련된 문항이지만 연구문제 4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3) 배경변인에 대한 논의

(1) 부모에 대한 논의

부모가 농인인 경우 본 연구에 의하면 대개는 부모도 밤 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에 대해 정서 명명화나 밤 경험에 대한 언어적 재구성에 직·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Swinkels & Guiliano, 1995). 결국 사춘기가 지난 농인 자녀의 청각장애인은 밤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기피성향이 형성되어 앞으로도 과거처럼 살아갈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이 발견은 청각장애가 밤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어려서부터 사춘기 때까지 형성된 정서적 성향이 평생을 좌우한다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최은실, 2009).

정리하면 농부모를 둔 청각장애인들은 건청부모의 청각장애인들에 비해 밤 활동 기피성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이다.

(2) 청력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대상자 중 5명의 청력이 서울C 1, 8.75dB, 서울C 2, 10dB, 서울C 4, 15.9dB, 경기F 1, 5~10dB, 서울E 1, 8dB로 모두 정상 또는 정상역에 속해있다. 서울E 1을 제외한 이들 모두는 밤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어려움도 동시에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E 1의 경우는 밤 활동에 따른 어려움도 겪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이것은 혼자 하는 밤 활동을 '1년에 1번 정도'라고 응답한 것의 영향으로 결코 밤 활동을 활발히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청력이 정상 또는 정상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자들 역시 밤 활동 시 청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겪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원론적인 부분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나 인공와우이식으로 정상청력에 이르는 수준으로 회복했다하더라도 건청인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상 또는 정상역에 속해 있음에도 이들 역시 다른 청각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독화인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결과에 나타난 배경변인을 정리하면, 부모의 청각장애 유무와 대상자의 청력손실 정도가 밤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게 되었다. 부모가 농인일 경우와 대상자의 청력이 정상역을 벗어날 경우, 밤 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청각장애가 밤 활동 기피성향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배경변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각장애가 연구문제 3, 4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2. 결론

1) 결론

전반적인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인식, 경험, 배경변인,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식에서는, 문항별(연구문제별) 연구결과, 첫째, 연구문제 1(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로 인해 건청인보다 밤을 더 두려워하는가?)은 전체 대상자 중 63.3%에서 최대 76.7%까지 건청인보다 밤을 더 두려워한다, 둘째, 연구문제 2(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로 인해 건청인보다 밤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 큰가?)는 전체 대상자 중 75.7%에서 최대 86.7%까지 건청인보다 밤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 크다, 셋째, 연구문제 3(청각장애인은 건청인에 비해 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밤 활동을 더 기피하는가?)은 전체 대상자 중 65.6%에서 최대 73.3%까지 건청인보다 밤 활동을 더 기피한다, 넷째, 연구문제 4(청각장애인은 건청인에 비해 밤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밤 활동을 더 기피하는가?)는 전체 대상자 중 62.2%에서 최대 80%까지 건청인보다 밤 활동을 더 기피한다는 것을 각각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별 점수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 대상자 중 연구문제 1은 26명(86.7%), 연구문제 2는 30명(100%), 연구문제 3은 27명(90%), 연구문제 4는 27명(90%)이 각각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는 밤 활동 선호 0명, 중립 2명, 기피 28명으로, 전체대상자의 90%이상이 건청인에 비해 밤에 대한 두려움, 밤에서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밤 활동 기피성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험에서는, 상황별 경험유무(경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93.3%의 대상자 대부분이 밤 활동을 하면서 청각장애로 인해 어려운 경험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황별로는 연구문제 1(밤에 대한 두려움)로 밤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80%이고, 연구문제 2(밤에서의 의사소통의 어려움)로 밤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86.7%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은 연구문제 3, 4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험 정도에서는, 대상자의 33.3%가 밤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청각장애인의 밤 활동 기피성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연구문제 3, 4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다.

배경변인에서는, 부모의 청각장애 유무와 대상자의 청력손실 정도가 밤 활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청각장애가 밤 활동 기피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청각장애가 연구문제 3, 4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로 인해 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청각장애인은 대부분 건청인에 비해 밤을 더 두려워한다.

둘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청각장애인은 대부분 건청인에 비해 밤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 크다.

셋째 연구문제 3, 4와 관련하여, 청각장애인은 대부분 건청인에 비해 밤에 대한 두려움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밤 활동을 더 기피한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청각장애인은 대부분 건청인에 비해 밤을 더 두려워하고, 밤에서의 의사소통을 더 어려워하며, 또한 밤 활동을 기피하는 성향이 더 크다.’

2) 제언

첫째, 밤에 대한 두려움은 연구결과와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오히려 밤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으나,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밤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밤에 대한 익숙함으로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밤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극복되기에는 매우 난망하다고 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이 밤 활동 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위험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것인데, 이는 청각장애인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병행이 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밤 활동 기피성향은 정서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까지 교육적·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기를 희망한다.

3) 제한점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각장애 특수학교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해도 30명이라는 숫자는 일반화는 차치하고라도 어떠한 주장을 논하기에도 부족한 숫자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빈도, 백분율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 외에는 어떠한 통계분석도 시도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는 단순한 설문조사이다. 청각장애인의 전체적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심층적인 탐구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논리의 전개상 연구문제를 인과관계식으로 설정하였을 뿐, 이를 증명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예상되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차원에 소기의 목적을 두었다.

참고문헌

- 강성순 (1993).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청각장애아동의 지각이 사회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희정 (2003). 청각장애 학생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란 (2001). 한국 사회에서의 밤시간활용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선경 (1993). Saint-Exupéry에 있어서 image의 二重性 연구(비행, 사막, 밤을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실 (2009).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Swinkels,A., & Giuliano,T.A.(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awareness: monitoring and labeling one's moo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Bulletin*, 21, 934-94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ight Activities' Cognition and Experience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Kim, Man In
Daegu University

<Abstract>

In order to find the overall inclination of the hearing impaired for night activitie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who reach the end of puberty, 2nd and 3rd graders in highschool, from April 15, 2013 to May 3, 2013. The analysis of findings on the survey was made in three aspects: cognition, experience, and background variables. The conclusion of the analysis is as follow: in general, the hearing impaired have more fear of night, more difficulty in communicating at night and show stronger inclination of evading night activities than normal people. In addition, there are other discoveries as follow.

First, of the hearing-impaired surveyed, 33.3 percent do not participate in night activities. Second, it implies that fear of night will be more of overcome by engaging in many night activities. Third, the hearing impaired either of whose parents are deaf can show stronger inclination of evading night activities. Fourth, there is a possibility not to do night activities for those whose hearing (remedied) is out of normal or normal limits(10~25dB), and 30dB or more.

Key Words : communicating, hearing impairment, night activities

논문 접수: 2015. 11. 05 심사 시작: 2015. 11. 10 게재 확정: 2016. 01. 10